

大學評價認定을 위한 기준 개발*

黃 禎 奎
(서울대 教育學科)

1. 머리말

大學評價認定을 위한 基準開發의 必要性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첫째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1987년의 '교육개혁심의회'의 최종 보고서에서도 지적되었고, 그 이후의 대학평가 제도에 서도 얻은 경험은 大學教育을 이 상테로 방치할 경우 大學教育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나 본질적 발전, 국제 경쟁력 등이 날로 약화되어 갈 것이라는 우려를 加重시켜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大學教育이 새로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大學教育의 質이며, 그것을 측정·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여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발전 방향을 진단하여야 하는가 하는 실제적 문제가 긴급한 과제로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개별 대학 나름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을 들 수 있다. 각 대학은 주어진 인적·물적·재화적 조건 속에서 학생을 받아들이고 가르치고 졸업시키고는 있으나, 개별 대학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늘 회의적이었다. 이에 대학 자체가 이러한 교육적 평가를 필요로 하면서도 심층적인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기에 여러 가지 난점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보다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평가 기준 및 방법의 개발은 개별 대학의 자체 평가를 자극하고 그것을 토대로 자기 발전의 방향을 정립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한 이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로 大學評價認定基準의 개발과 설정에 관련된 이론적 배경과 논리적 근거를 논의하고, 둘째로 大學評價認定을 위한 基準의 범위와 項目을 결정하고, 각 項目에 관련된 評價의 방향과 判斷標準를 마련하며, 셋째로 위에서 논의한 기준을 個別大學에 적용하려고 할 경우, 個別大學에 대한 大學綜合評價를 어떤 준거에 따라 判定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 다루어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개발하려는 大學評價認定基準이 지향해야 할 論理를 정립한다.

둘째,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大學評價認定을 위한 기준의 전체 내용을 大項目, 中項目, 小項目의 형태로 구조화하고 각각의 이론적 타당성을 탐색한다.

셋째, 각 小項目을 실제 평가하고 인정의 判

* 이 연구는 1990년도 문교부 정책 과제로 韓國大學教育協議會의 후원하에 책임연구위원 黃禎奎(서울대), 연구위원 南京熙(이화여대), 李鍾昇(충남대), 南廷杰(단국대)에 의해 연구가 진행중에 있음.

定을 하기 위해 항목의 定義, 평가 기준, 판단 근거와 그에 관련된 評價方法 및 필요한 방법을 탐구한다.

넷째, 單位大學에 대한 評價認定의 판정을 하는 논리와 방법을 탐구한다.

2. 大學評價認定 基準設定의 論理와 構造

1) 大學評價認定 基準設定의 論理

첫째, 대학교육을 통합·평가하기 위해서는 大學教育의 質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大學評價認定制度를 도입하는 근본 목적이 大學教育의 質을 높이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는 異論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大學教育의 質을 무엇으로 概念化하느냐에 대한 대답은 여러 가지로 異論이 있을 수 있다. 각 대학이 교육을 하고 난 다음 그 결과로서 기대하는 產出의 質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쉽게 정답을 제시하기 힘들다. 그러나 적어도 세 가지 準據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첫째로 秀越性(excellence)의 유지, 둘째로 社會的 適切性(social relevance)의 제고, 셋째로 구성원의 自我實現(self-realization)의 기회 극대화이다.

둘째, 大學評價認定의 기준 개발은 單位 大學 評價를 위한 基準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理想的으로 보면 각 학문 영역 혹은 學科에 관련된 評價認定制가 선행되어 거기에서 얻은 경험과 공통된 母數值를 기초로 하여 大學綜合評價 基準을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 부여된 요구는 우선 大學綜合評價 基準을 먼저 개발하는 데 있기 때문에 大學綜合評價 중심의 기준이 우선되어야 한다. 大學綜合評價 중심의 기준은 본질적으로 대학이라는 기관을 評價單位로 한 평가이기 때문에 基準의 성격은 微視的이기보다 巨視的일 가능성이 큰 방향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評價認定 基準에는 計量的 기준과 質的 기준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대학의 질을 결정하는 각종 지표를 측정·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은 비교적 객관적이며 可視的이고 구체

적인 計量的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지표의 경우에는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어떤 지표는 학생, 교수, 직원 및 관련 인사의 證言을 토대로 해석해야 할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관찰을 통해 판단해야 할 경우도 있다. 학생의 대출 도서의 수, 교수 대 학생의 비, 학생 1인당 장서 수 등 객관적인 지표는 측정하기도 쉽고 간단하다. 그러나 大學目的에 대한 합의 수준, 학교 분위기나 풍토 등(만약 이런 것이 기준으로 채택되었을 경우를 가상하면)은 객관적이고 計量的인 지수로 측정하기보다 질적인 평가가 오히려 타당하고 바람직하기도 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학 평가를 실시하던 初期(1983~1987)에는 주로 計量的 기준에 의거한 大學評價가 실시되었고, 최근(1987~1989)에는 大學自體評價를 권장하면서 質的 評價基準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평가로 방향 전환을 한 바 있다. 1990년 이후부터 실시하려는 大學評價認定制度에서 채택되어야 할 評價基準은 이러한 경험을 함께 수렴하여 計量的 기준과 質的 기준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방향에서 기준이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計量的 기준과 質的 기준의 두 가지 評價의 접근 방법은 서로 대타적 입장에 있기보다 각각의 접근 방법이 갖는 독특한 성격 때문에 서로 補充的 입장에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計量的 방법이 客觀性·信賴性·明瞭性·可比較性의 특징을 갖고 있는 반면 이러한 計量的 기준으로서 파악하기 힘든 정보를 놓치기 쉬운 단점이 있다. 또한 質的 평가 기준이 主觀性·臨床性·複雜性의 특징이 있어서 질적이고 深層的이며, 해석적 분석이 가능한 반면 객관적 지표로서 구체화하는 데는 난점이 뒤따른다.

넷째, 가능하면 모든 기준은 단순한 한 가지 자료에서 얻어진 單純指標(simple indicator)로 표시되기보다는 加重指標(weighted indicator)로 변환시킨 기준을 고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가장 간단한 加重指標인 b/a (학생 수/교수 수)라는 경우만을 예로 들어 보자. 이 지표 자체가 b 가 a 에서 독립된 혹은 b 가 a 의 제약을 벗어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

해 준다. 教授俸給이라는 단순 지표보다는(教授人件費) / (本會計 全體豫算)이라는 加重指標를 사용함으로써 本會計 全體 豫算이라는 제약에서 독립된 혹은 本會計 전체 예산을 고려한 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

加重指標를 얻는 방법은 다양하게 고안할 수 있다. 이것은 質로 규정된 개념이 의도하는 목적에 따라 加重值 變數를 달리할 수 있다는 뜻이며, 이것은 곧 지표 자체가 이미 모종의 價値判斷을 그 속에 내포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加重指標에는 비율뿐 아니라 總合點數 (composite score), 回歸 係數, log 지수 등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 그러나 복잡한 加重指標는 지표의 산출이 복잡하다는 점과 실제 被評價大學이나 評價者가 이해하기에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質의 기준의 경우에는 評價者의 主觀的인 解釋과 판단이 게재된 가능성을 허용하는 것이 이 방법의 단점이면서 동시에 美德이라고 할 수 있다. 동일한 현상이나 자료를 가지고서도 評價者가 다름에 따라 그 판단이나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主觀的 判斷의 誤差를 최대한 축소하고 평가자 사이의 共感의 合意에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준거, 자료, 방법에 대한 명료한 진술이 전제된다. 따라서 이 연구의 평가 기준 개발에서는 가능한 대로 편향된 主觀的 판단을 극복하고 問主觀的 解釋이 가능하도록 평가 기준, 방법, 자료를 명시하는 방향에서 기준을 개발하였다.

2) 評價認定 基準의 內容과 構造

대학 평가 인정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평가 대상의 내용에 어떤 것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것을 어떤 項目으로 정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시각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그동안 대학 평가에

관련하여 수행한 연구와 실제 평가 업무를 수행해 왔던 역사적 사실을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에서 또 피평가 대학들이 그동안의 대학 평가를 통해 이러한 內容과 構造에 익숙해 있다는 경험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래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987년도에 연구·개발한 ‘大學機關評價基準’¹⁾ 및 ‘大學評價便覽’²⁾의 內容과 項目을 가급적 고려하고, 동시에 1985년도에 연구했던 구조³⁾를 참고하였다. 前者(1987년)의 연구는 대학 자체 평가를 강조하기 위한 체제와 특성이 강조되었고, 따라서 計量的 기준보다 總體的(holistic)·質的 判斷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後者(1985년)는 대학의 자체 평가를 유도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는 있으나, 前者에 비해 상대적으로 計量的이고 客觀化될 수 있는 기준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立場을 모두 수용하는 방향에서 6개의 大項目을 결정하고 大項目 각각에 대해 논리적 판단에 따라 2~5개의 中項目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中項目에 대해 또한 3~7개의 小項目으로 분류하여 전체적인 評價 항목의 범위를 결정하였다.

6개 評價領域인 大項目 각각에 대해 최종적으로 선택한 小項目의 個數는 대략 15개 내의가 되도록 결정하였다. ‘약 15개’라는 수효는 被評價大學이나 評價者 측에서는 비교적 합리적이고 심층적 평가가 가능한 ‘統制의 範圍’로 보았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선택한 小項目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며, 決定的이고 또한 그 기준의 本質的인 특징을 가장 잘 대표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그 분야의 最低要求 기준임은 물론 평가 인정에 관련된 전문가 사이에 共感帶를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된 것만을 추출하였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결정된 평가 기준을 제시하면 뒤의 <표 1>과 같다.

1) 黃植奎 外, 大學機關評價基準 開發研究, 서울: 韓國大學教育協議會, 1987.

2) 韓國大學教育協議會 評價管理部(編), 大學評價便覽, 서울: 韓國大學教育協議會, 1987, 1989.

3) 韓國大學教育協議會, 大學機關評價報告書, 서울: 韓國大學教育協議會, 1985.

〈표 1〉 大學評價認定 基準의 內容 및 構造

1. 大學目標

1.1 大學目標의 정립과 표현

- 1.1.1 보편이념의 정립
- 1.1.2 교육목표의 정립
- 1.1.3 체계성
- 1.1.4 명료성

1.2 大學目標의 實現

- 1.2.1 합의성
- 1.2.2 공지성(公知性)
- 1.2.3 실제 활동과의 일치
- 1.2.4 학문의 자유

2. 敎育課程

2.1 敎養課程

- 2.1.1 대학이념 및 목표의 반영
- 2.1.2 교과과정의 전체적 구조
- 2.1.3 교과목의 내용 구성
- 2.1.4 교과목 담당교수
- 2.1.5 교과목 운영
- 2.1.6 평가

2.2 學部專攻課程

- 2.2.1 대학 이념 및 목표의 반영
- 2.2.2 교과과정의 전체적 구조
- 2.2.3 교과목의 내용 구성
- 2.2.4 교과목 담당교수
- 2.2.5 교과목 운영
- 2.2.6 평가
- 2.2.7 전공제의 탄력성

2.3 大學院 課程

- 2.3.1 과정의 엄격성
- 2.3.2 교과목의 내용 구성
- 2.3.3 교과목 담당 교수
- 2.3.4 논문 지도 및 심사
- 2.3.5 졸업생의 전문분야 진출

2.4 교과과정 편성 및 개선체제

- 2.4.1 전체 교육과정 위원회
- 2.4.2 교양과정 위원회
- 2.4.3 학과별 전공과정 위원회

3. 學 生

3.1 學生選拔

- 3.1.1 입학정책
- 3.1.2 입학전형
- 3.1.3 학생유치

3.2 學事管理

- 3.2.1 학사지도
- 3.2.2 성적평가 관리
- 3.2.3 학생자질 관리

3.3 學生指導 및 成果

- 3.3.1 상담지도
- 3.3.2 진로지도
- 3.3.3 취업률

3.4 學生自治活動

- 3.4.1 학생회 활동
- 3.4.2 서클 활동
- 3.4.3 약술 활동

3.5 獎學 및 福祉

- 3.5.1 장학금
- 3.5.2 학생복지
- 3.5.3 학생보전

4. 敎 授

4.1 人 事

- 4.1.1 교수채용
- 4.1.2 승진제도
- 4.1.3 보직임용

4.2 處 遇

- 4.2.1 보수
- 4.2.2 신분보장
- 4.2.3 후생복지

4.3 敎授與件

- 4.3.1 교수 확보
- 4.3.2 교수의 질
- 4.3.3 교수보조 인력
- 4.3.4 수업 부담

4.4 研究와 奉仕

- 4.4.1 연구 여건
- 4.4.2 부설 연구소
- 4.4.3 논문지도
- 4.4.4 연구실적
- 4.4.5 사회봉사와 산학협동

4.5 敎授資質 開發

- 4.5.1 연구 휴가
- 4.5.2 연 수
- 4.5.3 교수교류
- 4.5.4 교수평가

5. 施設・設備

5.1 의학시설(기본시설)

- 5.1.1 강의실

- 5.1.2 실험실습실
- 5.1.3 교수 연구실
- 5.1.4 학생회관
- 5.1.5 기숙사
- 5.1.6 교지
- 5.1.7 체육장
- 5.2 연구시설·설비
 - 5.2.1 연구용 실험실
 - 5.2.2 연구용 실험기기
 - 5.2.3 대학원 연구실
 - 5.2.4 부속시설
- 5.3 도서관 및 전산소
 - 5.3.1 도서관 면적·열람석
 - 5.3.2 도서관 장서
 - 5.3.3 도서 구입비
 - 5.3.4 전문직(사서) 확보
 - 5.3.5 전산시설 보유
 - 5.3.6 전산시설 활용

6. 行·財政

- 6.1 政策決定과 指導性
 - 6.1.1 정책결정기구
 - 6.1.2 정책결정과정
 - 6.1.3 지도성
- 6.2 行政
 - 6.2.1 행정직원
 - 6.2.2 기획
 - 6.2.3 조직
 - 6.2.4 집행
 - 6.2.5 평가
- 6.3 財政
 - 6.3.1 재원확보
 - 6.3.2 예산편성
 - 6.3.3 예산운용
 - 6.3.4 효과

3) 評價認定 基準의 敘述方法

앞에서 제시한 6개 大項目 각각에 대한 기준의 서술 방식은 다음과 같은 형식(format)에 따라 기술하였다.

● 大項目의 敘述

각 大項目에 관련하여 ① 해당 항목 영역을 설정하게 된 배경과 논리, ② 각 대항목의 내용과 구조의 제시, ③ 각 대항목을 평가할 때 적용해야 할 ‘평가 방향’의 세 가지를 순서대로

포함시켰다.

● 中項目의 敘述

각 中項目에 관련하여 ① 중항목 설정의 배경과 이유, ② 중항목 평가에 적용해야 할 ‘평가 방향’의 두 가지를 순서대로 제시하였다.

● 小項目의 敘述

小項目은 評價를 하려고 할 때 실제 評價者가 척도로 이용할 준거가 된다. 따라서 평가자에게나 被評價者에게나 小項目의 구성이 가장 직접적인 판단 근거가 된다. 小項目 평가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定義’

여기에서는 각 小項目으로 제시된 기준이 多義的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해당 항목에 대한 개념을 명료화하는 일을 강조하고 그것을 기술하였다.

② ‘評價基準’

각 小項目을 평가할 때 적용해야 할 평가의 기준을 命題的 進술로 구체화하였다.

③ ‘判斷準據’

각 소항목을 평가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관찰하려는 準據’가 무엇인지를 질문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이 판단 준거는 대개 2~5개 정도의 구체적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질문에 대해 A, B, C의 3단계 판단을 하도록 마련되어 있다.

또한, 이 판단 준거 중에는 計量的 指標에 의거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도 있고 文獻, 面談, 觀察, 기타 자료를 근거로 해서 質的 判斷을 해야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計量的 指標의 경우에는 명시된 準據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비교적 기계적 절차에 그치나, 質的 判斷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평가자의 주관적 해석에 의한 偏見과 전해가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

④ ‘評價方法 및 資料’

각 小項目 마지막에는 해당 항목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평가 방법과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被評價大學에서는 여기에 제시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하며, 評價者는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면밀히 검토·분석하고 그 기초 위에서 최종적인 평가의 판단을 해야 한다.

3. 個別大學에 대한 評價의 判定

1) 加重值 適用의 論理와 方法

각 개별 대학에 대해 <표 1>에서 제시한 6개 大項目, 22개 中項目, 93개 小項目에 대해 어느 정도의 加重值를 주어 평정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다. 이러한 방식에 대한 한 가지 입장은 모든 小項目을 同一한 비중으로 생각하고, 單位 加重值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 방법은 평정하기가 용이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비교적 객관성과 효율성이 크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각 小項目은 그것이 '大學教育의 質' 혹은 '大學教育의 効果性'에 미치는 영향 혹은 비중이 같을 수 없다는 논리가 보다 더 합리적인 판단이다.

加重值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두 가지 접근 방식이 가능하다. 첫째는 각 小項目의 加重值를 먼저 결정하고, 이것을 합산하여 中項目의 加重值로 결정하고, 中項目의 가중치를 합산하여 大項目의 加重值로 결정하는 접근 방법이다. 둘째 접근 방법은 먼저 大項目에 대한 加重值를 결정한 다음 이것을 中項目, 小項目으로 배분해 가는 접근이다. 편의상 前者의 접근 방법을 '歸納的 接近'이라 하고, 後者의 것을 '演繹的 接近'이라고 하자. 前者의 방법은 각 大項目에 속하는 中項目, 小項目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적용하기 적절하나 이것이 전혀 다른 경우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다. 즉, 소항목 수를 많이 포함하고 있고, 대항목 영역이 大學教育의 質에 미치는 영향이 본질적으로 큰가, 작은가에 관계없이 가중치의 값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각 소항목의 X 가중치를 결정하는 연구자의 주관적 편견이 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後者의 演繹的 接近에 따라 加重值를 결정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1) 大項目의 加重值

6개 大項目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의 加重值를 주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대학 교육에 관련된 전문가 집단에게 판단을 의뢰하였다. 이때 6개 大項目에 부여하는 加重值의 배분이 개인적 취향에 따라 그 점수의 폭이 지나치게 커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比較項目

(anchor item)으로서 '敎育課程'을 60으로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0~100 사이의 가중치를 주도록 요구하였다.

교육과정 項目에 60을 준다면 그에 비해 다른 대항목에 어느 정도의 加重值를 주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게 한 방법이다. 이 결과 나타난 수치를 整數로 바꾸어 제시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

大學目標	25
敎育課程	60
學 生	50
敎 授	75
施設·設備	50
行·財政	60
計	320

(2) 中項目 및 小項目의 加重值

中項目의 加重值는 大項目에 배당된 加重值를 가지고, 각 中項目이 大學教育의 質에 미치는 영향을 計測하여 주어진 加重值를 각 중항목에 分割配分하였다. 이어서 배분된 中項目의 加重值를 다시 각 小項目으로 分割 배분하는 방식으로 결정하였다.

中項目 및 小項目 加重值를 결정할 때, 먼저 각 大項目 영역의 評價 기준 개발을 담당할 당해 연구자가 당해 영역의 각 항목에 대한 가중치 판단을 가장 정확히 할 수 있다고 믿고, 일차적으로 각 연구자가 결정하는 방법을 1차적으로 채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연구자 전원이 참여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중항목 및 소항목의 가중치를 수정하여 최종적인 가중치를 확정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별 가중치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대학 평가 인정을 위한 기준과 가중치

大項目	中項目/小項目	加重值
I. 大學目標		(25)
1.1 대학교육의 정립과 표현		(11)
1.1.1 보편이념의 정립		(3)

- 1.1.2 교육목표의 정립(3)
- 1.1.3 체계성(3)
- 1.1.4 명료성(2)
- 1.2 대학 목표의 실현(14)
- 1.2.1 합의성(3)
- 1.2.2 공지성(3)
- 1.2.3 실제 활동과의 일치(6)
- 1.2.4 학문의 자유(2)

II. 教育課程((60))

- 2.1 교양과정(15)
- 2.1.1 대학이념 및 목표의 반영(1)
- 2.1.2 교과과정의 전체적 구조(1)
- 2.1.3 교과목의 내용 구성(5)
- 2.1.4 교과목 담당교수(4)
- 2.1.5 교과목 운영(2)
- 2.1.6 평가(2)
- 2.2 학부전공과정(22)
- 2.2.1 대학이념 및 목표의 반영(1)
- 2.2.2 교과과정의 전체적 구조(1)
- 2.2.3 교과목의 내용 구성(5)
- 2.2.4 교과목 담당내용(7)
- 2.2.5 교과목 운영(3)
- 2.2.6 평가(3)
- 2.2.7 전공제의 탄력성(2)
- 2.3 대학원 과정(17)
- 2.3.1 과정의 엄격성(2)
- 2.3.2 교과목의 내용 구성(5)
- 2.3.3 교과목 담당교수(5)
- 2.3.4 논문지도 및 실사(4)
- 2.3.5 졸업생의 전문분야 진출(1)
- 2.4 교육과정 편성 및 개선 체제(6)
- 2.4.1 전체 교육과정 위원회(2)
- 2.4.2 교양과정 위원회(2)
- 2.4.3 학과별 전공과정 위원회(2)

III. 學 生((50))

- 3.1 학생 선발(10)
- 3.1.1 입학정책(3)
- 3.1.2 입학전형(5)
- 3.1.3 학생유치(2)
- 3.2 학사관리(10)
- 3.2.1 학사지도(3)
- 3.2.2 성적평가 관리(3)
- 3.2.3 학생자질 관리(4)
- 3.3 학생지도 및 성과(11)

- 3.3.1 상담지도(3)
- 3.3.2 진로지도(2)
- 3.3.3 취업률(6)
- 3.4 학생자치활동(7)
- 3.4.1 학생회활동(3)
- 3.4.2 서클활동(3)
- 3.4.3 학술활동(1)
- 3.5 장학 및 복지(12)
- 3.5.1 장학제도(7)
- 3.5.2 학생복지(3)
- 3.5.3 학생보건(2)

IV. 敎 授((75))

- 4.1 인사(11)
- 4.1.1 교수채용(7)
- 4.1.2 승진제도(2)
- 4.1.3 보직임용(2)
- 4.2 처우(12)
- 4.2.1 보수(7)
- 4.2.2 신분보장(3)
- 4.2.3 후생복지(2)
- 4.3 교수여건(19)
- 4.3.1 교수확보(8)
- 4.3.2 교수의 질(3)
- 4.3.3 교수보직인력(3)
- 4.3.4 수업부담(5)
- 4.4 연구와 봉사(21)
- 4.4.1 연구여건(6)
- 4.4.2 부설 연구소(4)
- 4.4.3 논문지도(3)
- 4.4.4 연구실적(6)
- 4.4.5 사회봉사와 산학협동(2)
- 4.5 교수자질개발(12)
- 4.5.1 연구 휴가(4)
- 4.5.2 연수(3)
- 4.5.3 교수교류(3)
- 4.5.4 교수평가(2)

V. 施設・設備((50))

- 5.1 의학시설(기본시설)(25)
- 5.1.1 강의실(7)
- 5.1.2 실험실습실(4)
- 5.1.3 교수연구실(3)
- 5.1.4 학생회관(2)
- 5.1.5 기숙사(2)
- 5.1.6 교지(5)

- 5.1.7 체육장(2)
- 5.2 연구시설·설비(12)
 - 5.2.1 연구용 실험실(5)
 - 5.2.2 연구용 실험기기(3)
 - 5.2.3 대학원 연구실(2)
 - 5.2.4 부속시설(2)
- 5.3 도서관 및 전산소(18)
 - 5.3.1 도서관 단적·열람석(5)
 - 5.3.2 도서관 장서(4)
 - 5.3.3 도서구입비(2)
 - 5.3.4 전문적(사서) 확보(2)
 - 5.3.5 전산시설 보유(3)
 - 5.3.6 전산시설 활용(2)

Ⅶ. 行·財政((60))

- 6.1 정책결정과 지도성(10)
 - 6.1.1 정책결정기구(3)
 - 6.1.2 정책결정과정(4)
 - 6.1.3 지도성(3)
- 6.2 행정(20)
 - 6.1.1 행정직원(5)
 - 6.1.2 기획(4)
 - 6.1.3 조직(4)
 - 6.1.4 집행(4)
 - 6.1.5 평가(3)
- 6.3 재정(30)
 - 6.3.1 재원확보(10)
 - 6.3.2 예산편성(8)
 - 6.3.3 예산운용(8)
 - 6.3.4 효과(4)

(3) '判斷準據'의 加重値

각 小項目에는 2~5 개 정도의 '判斷準據'가 질문의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判斷準據'들은 평가자가 해당 小項目을 평가하기 위하여 무엇을 준거로 삼아 평가 및 판단을 해야 할 것인지 하는 구체적 評價指標가 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각 小項目에 배당된 加重値의 값은 다시 '判斷準據'들에 대해 분할되어 배당되었다. 그러므로 判斷準據들의 加重値를 합산하면 해당 소항목의 加重値가 된다. 평가자는 이러한 判斷準據에 대한 평가만 정확하고 타당하게 하면 되는 셈이다.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에 대한 평정은 각 소

항목 속에 포함되어 있는 '判斷準據'의 평정이 그 기초가 된다. 즉, '判斷準據'에서의 판정 결과가 합산되어 소항목의 평정 점수가 되며, 소항목의 평정 점수가 합산되어 중항목의 평정 점수가 되고, 최종적으로 중항목의 평정 점수가 합산되어 대항목의 평정 점수가 된다. 따라서 소항목의 '판단 준거'는 모든 항목의 평정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判斷準據'는 각각 A, B, C의 평정을 하게 되어 있다. A의 평정은 3, B의 평정은 2, C의 평정은 1의 점수를 부여하게 되며, 이 평정 점수를 당해 '판단 준거'의 가중치에 곱하면 그것이 당해 판단 준거에 대한 得點이 된다. 예컨대 어떤 判斷準據에 2점의 가중치가 배정되어 있다고 하자. 이 판단 준거에 대해 각각 A, B, C의 평정을 받는 경우, 받게 되는 得點은 다음과 같다.

평 정	판단준거의 가중치	특 점
A(=3) ×	2	= 6
B(=2) ×	2	= 4
C(=1) ×	2	= 2

아래에 '판단 준거' 중 계량적 평정을 요구하는 경우와 질적 평정을 요구하는 경우를 예시하였다.

<계량적 평정을 요구하는 판단 준거의 예>

4.3.2 교수의 질.....(2)

가. 정의 : (생략)

나. 평가 기준 : (생략)

다. 판단 준거 :

① 전임 교수의 박사학위 소지율은 어느 정도인가?(2)

A : 80% 미만

B : 50~80% 미만

C : 50% 미만

② 외래 강사의 박사학위 소지율은 어느 정도인가?(1)

A : 60% 이상

B : 30~60% 미만

C : 30% 미만

라. 평가 방법 및 자료

- 전임 교수의 박사학위 소지율(전임교수 중 박사학위 소지자 수/전임교수 수)
- 외래 강사의 박사학위 소지율(외래강사 중 박사학위 소지자 수/외래 강사 수)

〈질적 평정을 요구하는 판단 준거의 예〉

3.3.2 진로 지도.....(2)

가. 정의 : (생략)

나. 평가 기준 : (생략)

다. 판단 준거 :

- ① 진로 지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회적 분야의 자원 인사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1)

A : 아주 잘 활용한다.

B : 대체로 활용하는 편이다.

C :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 ② 진로 지도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는가?(1)

A : 그렇다.

B :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

C : 아니다.

라. 평가 방법 및 자료

- 학생들의 특성과 요구 분석 자료
- 진로 지도 실적 자료

2) 單位大學에 대한 綜合評價의 判定

각 單位大學에 대한 ‘大學綜合評價’의 방법은 각 小項目에 대한 판정을 정확하고 타당하게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小項目에 대한 판정을 하면, 中項目과 大項目의 판정은 기계적으로 진행된다.

(1) 小項目의 判定

각 小項目에는 질문 형식으로 된 몇 개의 ‘판단 준거들’이 제시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설명하였다.

評價者는 소항목에 포함된 이러한 판단 준거 각각에 대해 A(=3), B(=2), C(=1)의 3단계 판정을 하고 이것을 ‘각 판단 준거에 배당되어 있는 加重値’에 곱하여 합산하면 그것이 당해 소항목의 점수가 된다는 것을 이미 설명하였다.

이것을 ‘4.1.1 교수 채용’의 소항목에 대해 예시해 보자.

가중치

4.1.1 교수 채용.....(7)

가. 정의 : (생략)

나. 평가 기준 : (생략)

다. 판단 준거 :

- ① 교수 채용의 방침과 기준 및 절차가 합

리적인가?.....(2) $\frac{\text{가중치}}{\text{A} \oplus \text{B} \oplus \text{C}} \frac{\text{평정}}{4}$ $\frac{\text{특점}}{4}$

- ② 교수를 채용할 때 공개적으로 하는가?

.....(3) $\text{A} \oplus \text{B} \oplus \text{C}$ 9

- ③ 우수한 교수를 유치하기 위한 학내·외 협력 관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1) $\text{A} \oplus \text{B} \oplus \text{C}$ 2

- ④ 본교 출신 교수의 구성 비율은 과다하지 않은가?.....(1) $\frac{\text{A} \oplus \text{B} \oplus \text{C}}{2}$

계 17

※ A, B, C의 ○표시는 평가자가 평정한 결과임.

이 대학은 ‘교수 채용’이라는 소항목 속의 4개 판단 준거 각각에 대해 B, A, B, B의 평정을 받았고, 이것에 각 판단 준거의 가중치를 곱하여 얻은 소항목 특점이 17점이 된다. 모든 소항목의 특점은 위에 예시된 바와 같은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2) 大項目의 判定

각 소항목 및 중항목에 대해 평가인정의 등급을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항목, 중항목을 모두 그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번거로운 일이기도 하지만, 항목끼리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찾기 어렵다. 그러므로 소항목과 중항목에 대한 평가 인정의 판정을 하는 것은 당해 대학이 자율적 발전을 위한 자료로 삼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6개 大項目은 각각 그것들이 대학교육의 質을 평가하는 중요한 指標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大項目 각각에 대해 독립적으로 評價認定의 等級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大項目은 각각 그 加重値가 다르기 때문에 大項目마다 評價認定의 等級을 결정하는 得點 분포가 다르다. 따라서 각 大項目의 점수 범위를 고려하여 그 점수 범위를 3등분한 기초 위에서 뒤의 <표 3>과 같이 등급을 결정하였다.

〈표 3〉 大項目 評價認定의 等級

大項目	加重值	可能得點範圍	評價認定의 等級	
			得點	等級
大學目標	(25)	25~75	61~75	우수
			38~60	양호
			25~37	미흡
教育課程	(60)	60~180	140~180	우수
			100~139	양호
			60~99	미흡
學 生	(50)	50~150	124~150	우수
			89~123	양호
			50~88	미흡
教 授	(75)	75~225	174~225	우수
			125~174	양호
			75~124	미흡
施設·設備	(50)	50~150	116~150	우수
			83~115	양호
			50~82	미흡
行·財政	(60)	60~180	140~180	우수
			100~139	양호
			60~99	미흡

각 단위 대학에 대한 대학 종합 평가는 대항목별 평정을 최종적인 평가로 한다. 이것은 대항목의 득점을 합산한 총 득점을 기초로 한 단위 대학에 대한 종합 평가는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식을 택하는 이유는 대학 종합 평가가 대학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며, 그 목적은 대항목 평가의 결과로서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대항목 득점을 합산할 總得點으로 대학의 종합 평가를 하는 경우 總點에 의한 大學間 서열화를 유도해 내고, 이것이 오히려 커다란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항목 득점으로 대학 종합 평가를 하면 각 대학이 6개 대항목 영역 중 어느 부분이 우수하며 어느 부분이 부족한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교육 개선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고, 대학 발전 방향을 진단하고 계획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4. 맺음말

대학 평가 인정을 위한 評價의 基準과 評價方

법을 개발하는 課題가 대학 평가 인정 제도의 성공 및 실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라는 데에는 누구나 동의하면서도 실제 이를 어떤 理論的 근거와 체계 속에서 개발할 것인가 하는 실제적 질문에 부딪치면 합의된 결론을 추출하기에는 대단한 異論이 제기된다. 이 연구는 적어도 이러한 合意의 공통 본모를 탐색하려고 노력하였다는 데에 그 뜻이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대학 평가 인정 기준의 특징을 들면 다음 몇 가지로 결론내릴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 연구는 대학을 하나의 평가 단위로 간주하고 대학의 교육적 기능에 관련된 모든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려는 시각에서 접근하여 기준을 개발하였다. 그러한 뜻에서 이 연구에서 제안된 기준은 대학 종합 평가를 위한 기준이며, 대학교육의 여러 측면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망라성을 큰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동시에 어느 특정 학문 계열이나 학과 수준의 微視的 특징은 철저히 평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뜻한다.

둘째, 이 연구에서 개발한 평가 기준은 체계적인 논리적 구조를 강조하였다. 이 연구에서 다루어진 평가 분야인 대학 목표, 교육과정, 학생, 교수, 행정, 재정의 大項目間의 체계적 관련성은 물론이고 각 대항목 분야 아래 내포된 中項目, 小項目, 判斷基準의 설정에 이르기까지 횡적·종적으로 체계적이면서 동시에 논리적 타당성과 일관성을 견지하려고 했다는 것을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각 대항목 내에서는 그것 나름의 체계에 따라 기준을 개발하였거니와 동시에 항목간의 횡적 관계도 체계성을 갖추려고 하였다.

셋째, 평가 기준을 개발함에 있어 한국의 대학교육사에서 평가를 실시하였던 과거의 경험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동시에 장차 한국의 대학이 어느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發展的 기대상을 고려하며 기준을 개발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대개의 기준은 현실의 확인에 있기보다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발전상이 전제되어 있고, 따라서 상당히 많은 수의 지표가 현실보다는 한 발짝 앞선 기대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기준을 분석하면 그것

으로 한국 대학이 나아가야 할 미래상을 읽을 수 있고, 대학 발전 방향의 철학을 감지할 수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 개발한 대학 평가 인정 기준은 대학간의 비교나 서열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에서가 아니라 대학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수준을 확인하고 그것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표 지향의 평가관에 기초하고 있다. 6개 대항목을 묶어 總點으로 표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대학간 비교를 지양하기 위해 總點 표현은 제외한 것이 이러한 의도를 나타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기본 자세로 이 기준에 의해 평가를 받는 대학측이나 평가를 하는 평가자가 모두 공통적으로 지녀야 할 이해의 공감대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섯째, 評價의 기준은 計量的 기준과 質的 기준의 긴장된 조화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대학교육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質的·量的 기준이 모두 요구되며, 이 두 가지 방법이 서로 상호적 관계로 긴장된 조화를 유지할 때 평가의 활력은 생성되기 마련이다.

이 연구와 관련하여 몇 가지 提言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개발된 대학 평가 기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評價者와 被評價者 모두에게

심도있는 理解와 전문적 훈련 및 경험이 요구된다. 자칫 소홀하게 접근한다면 평가를 핑계로 한 횡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평가자나 피평가자 모두 사전에 기준의 의미, 평정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충분한 이해와 훈련, 경험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질적 판단을 요구하는 기준의 경우에는 이러한 준비가 더욱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에서 개발된 기준이 절대적 준거는 아니다. 시대적 변화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계속 수정되고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은 강력하다. 이를 위해 韓國大學教育協議會 내에 계속적인 점검과 수정 작업을 위한 연구가 상설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관한 전문적 자문과 지도를 할 수 있는 조직 혹은 인적 자원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 제안된 평가 기준은 대학의 특징을 고려하지 아니한 단일안의 형태를 띠고 있다. 장차 대학의 특징에 따라 적용된 평가 기준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컨대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육대학과 기타 대학, 신학대학과 기방대학 등 대학의 체제, 제도, 조직에 있어 본질적으로 이질적 성격을 띤 대학에 대해 달리 사용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